

# 여수박람회장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지로 거듭난다

### 여수광양항만공사 20억 들여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미래첨단·친환경·AI·K컬처·해양관광 등 복합 개발계획 구상

여수박람회장이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 거점으로 시동을 걸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과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거점으로 재편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여수세계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용역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에 사전 공고하고,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과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용역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이후 박람회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후활용방안 모색과 연안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상 제시, 지역 상생 기여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의 850만명이 다녀간 여수세계박람회

장이 해양레저 관광 거점화로 변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용역은 전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5억원씩을 부담하고 공사가 10억원을 부담해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용역 범위는 여수신항 및 신복항을 포함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으로 육상 부분과 해상 부분을 포함해 약 314만㎡의 구역이 대상이다. 기초조사 및 사업여건분석, 마스터플랜수립, 마케팅 및 사업화 계획, 공공지원 및 사업관리방안, 사후활용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18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여수세계

박람회장 마스터플랜을 통해 미래첨단, 친환경, AI·드론, K-컬처, 해양레저 관광이 복합된 종합 개발구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2030년), 중기(2035년), 장기(2040년)로 구분해 세부적인 활용계획도 수립한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용역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이 남해안을 넘어 나폴리, 시드니,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성공적인 사후활용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채널본부장 chkim@

### 영암군 최대 2056만원 전기차 200대 보조금 지원



영암군 전기 자동차 충전소.

영암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기차 승용차 100대, 화물차 100대 등 모두 200대다.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556만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056만원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불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영암군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해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개관...시민 맞춤형 환경학습 제공

### 마동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환경교육실, 전시·체험실 등 갖춰

광양시가 시민 맞춤형환경학습을 제공할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환경교육센터는 시민에게 친숙공간과 생태체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그동안 기후변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화된 환경교육 장소가 없어 고심이 깊었다. 시는 마동 생태공원 내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환경교육실과 전시·체험실을 조성해 환경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자료를 개발해 환경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기후환경네트워크에 운영을 위탁했다. 환경교육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 등 원하는 교육을 신



지난 25일 정인화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교육센터 개관과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과 센터 운영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길 광양시 환경과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친화 도시 광양이라는 새로운 패

러다임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교육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해남군, 지적공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

해남군이 25일자로 올해 35개 지구, 1만7729필지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도를 사용하면서 국제표준과 약 365m의 차이가 있고 다른 지도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각종 공간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측지계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위치기준 측지계로,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좌표다. 군은 2021년부터 국제표준 좌표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시작, 지금까지 40만333필지를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군 전체 44만4000여필지의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됨에 따라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목포시의회 ' 시내버스 210억 노선권 매입' 동의안 가결

### 중고버스·CNG충전소 양도양수 7~8월 준공영 새 운영체계 도입

목포시는 목포시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가결을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이하 인수인계 계약안)의 시의회 통과로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선개

편 실행 이후 지연된 노선 공영화·운영체계 전환·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수인계 계약안은 채무금액이 확정된 노선권 양도양수 금액 210억원과 중고버스 및 CNG충전소의 양도양수 등을 담고 있다. 또 차고지와 정비소 등 운영 인프라의 임대, 근로자 고용승계, 시내버스 비상운영 6월까지의 연장에 대한 협력 추진 등 주요 필수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노선권 매입 비용 210억원은 대표이사나

주주들에게 배분되거나 개인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태원·유진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은 태원·유진 운수의 기업정산에 따른 근로자 퇴직급여 143억원 등에 최우선 사용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은 민영버스회사가 공영·준공영 버스회사로 혁신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더 이상 멈추지 않는 파업없는 시내버스,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시내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시민, 시의회, 언론 등과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대상자 확대 상반기 100가구 모집

지난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혁신정책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화순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상반기 만원 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기로 하고 4월1일부터 14일까지 정부24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 '만원 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입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은 화순읍 소재 66㎡(20평)형 임대아파트로 가구당 4600만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은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100가구 모집에 총 1435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해 1차 10대 1, 2차 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청년 82가구, 신혼부부 18가구가 입주했다. 올해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살 이상 49살 이하의 청년·신혼부부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올해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공고일로부터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로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화순군은 4월14일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은 뒤 5월 입주자 추첨, 6월 입주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